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과 지리교육

송 훈 섭*

Critical Literacy Education of Freire and Geography Education

Hoon-Sup Song*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지리적 문해력을 통한 지리적 지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지리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응용·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약하나마 중학교 지리수업에 적용해봄으로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지리교육이라는 교과학습에 연계시킨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 파울로 프레이리, 비판적문해교육, 지리적 문해력, 민주시민, 세계화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introduce critical literacy education of Freire in geography education and to emphasize the need of its wid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to grow as democratic citizens with geographic knowledge through the critical literacy of geography which is most important in geography education and to show the examples related to learning geography education with critical literacy education of Freire by applying to teaching in Middle school.

Key words : Paulo Freire, Critical Literacy Education, Geographical literacy, Democracy Citizen, Globalization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리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지표공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비판적인 시각을 함양시킴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의 역동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평면적인 이데올로기만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다.

지리교육은 특정집단의 사회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그들의 처한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현실 속에 내재된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적 문해교육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다시말해 지리적 문해력을 통해 지리적 지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문해력을 통한 민

* 문산여자중학교 교사(Teacher, Munsan Women-Middle School)

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의 의미에는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체로서의 합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인식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현실 참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리적 문해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의 공간적 질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공간에 대한 주체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소외된 삶이며 객체적 삶의 지속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현실에 개입함으로써 인간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퍼져있는 텍스트, 영상, 미디어, 정보, 기술, 이데올로기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비판적 문해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의 해석에 중심을 두고 있는 지리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문해능력의 필요성은 어느 과목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지리적 문해력을 통한 지리적 지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지리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응용·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약하나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지리수업에 적용해봄으로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지리교육이라는 교과학습에 연계시킨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프레이리의 교육철학과 교육방법을 지리교육과 어떻게 함목적으로 일치시키고 변증법적으로 형성해나갈 수 있는가를 많은 교사와 지리학도가 고민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II. 프레이리의 인간화교육과 지리교육

1. 프레이리 교육사상의 핵심적 내용

프레이리 교육론의 핵심은 인간화이다.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간 해방 또는 인간화에 있다. 인간화를 통해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화 교육의 핵심내용이다. 소외된 즉 비인간화된 인간이 주체자로서의 의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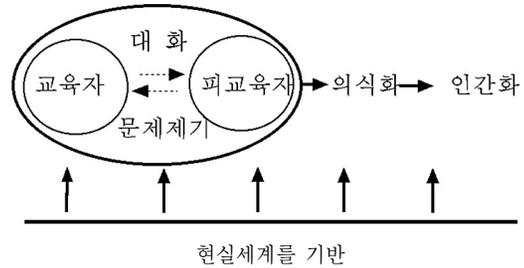


그림 1. 프레이리의 교육이론

깨달게 될 때 객체적 상황에서 주체적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림 1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결국 프레이리 교육론의 핵심은 인간해방(인간화)이며 진정한 인간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대화의 과정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에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하며, 상호 비판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한 관계정립이 이루어질 때 문제제기를 통해 세계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비판적 문제제기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의식을 고양시켜 현실 세계를 바르게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인간은 현실 삶에 있어서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1) 대화식 교육

프레이리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된 대화는 주체들 사이를 매개하는 지식습득 대상을 인지하는데 있어 주체들이 서로 일체가 되도록 한다. 이는 주어진 음절, 낱말, 구절을 암기하고 되풀이하는 일이 아니라, 읽고 쓰기의 과정 자체와 언어의 깊은 뜻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대화를 통한 교육 즉 대화식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와 교육자는 수직적 관계이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하며,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일 때 진정한 대화식 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학습자와 교육자가 수직적 관계에 있다면 그들은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들의 대화는 위계에 의해 나누어지는 것이다.

2) 문제제기식 교육

은행저금식 교육은 학생이라는 텅빈 저금통장에 교사가 지식이라는 돈을 저축하는 식의 교육을 의미하며, 교사는 지식을 설교하는 지식의 예탁자이고 학생은 지식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예탁소가 되는 것으로 창조력도 변혁의 의지도 지식도 없는 교육을 말한다.

프레이리는 은행저금식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과정이 되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기존의 억압적인 사회 논리에 적응하게 됨으로서 비인간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비판한다. 은행저금식 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문제제기식 교육이란 은행저금식 교육에서 '예탁금마련'이라는 교육목표를 지양하고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갖게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문제제기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세계를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실의 문제에 있어 비판적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3) 의식화교육

의식화 교육이란 변화불능적 의식(intransitive consciousness), 주술적 의식(magical consciousness), 대중적 의식(popular consciousness)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습자들의 의식을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으로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자신에게 직면해있는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판적 의식을 가질 때 인간해방 즉 인간소외의 벽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의식화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식화되어야 하는 인간의 소명은 인간이 유토피아적인 꿈을 꾸는 존재라는데 큰 의의

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향한 의식화의 노력없이 한계상황은 극복되지 않으며,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계행동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 프레이리의 교육론과 지리교육

1) 프레이리의 교육론의 현실적 필요성

심성보 교수는 왜 지금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론의 핵심적 사상이 더욱 읽어야 하고, 페다고지의 목소리를 더욱 내야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군사정부의 억압에서 벗어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억압을 겪고 있고, 억압에서 자유로운가? 이전의 군사정부 때보다 물리적 억압이 상당히 사라지고 절차적 자유를 다소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초보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치 경제적 자유, 그리고 내적인 자유등 고차적인 진보적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진보적 자유를 인식하기 위해 다시 페다고지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억압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에 페다고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물질적 정신적 빈곤이 여전하고, 폭력적 제도와 관행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로 인해 페다고지를 다시 살려 내야 한다. 억압을 억압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암울한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침묵문화의 조종이 여전하기에 이를 깨우치게 하는 의식화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대화를 가로막는 시장적 신자유주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페다고지의 목소리를 더욱 내야 하는 시기이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예외 일 수 없고 이미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파고의 정점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다. 많은 부분이 세계화와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구조 조정되고 민영화되고 있으며, 교육도 점차 시장의 굴레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생활이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을 미루어볼 때 민중들의 삶은 오히려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땅의 대다수 민중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탐구정신, 비판적 이해력 그리고 현실을 울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려면 현실교육에서 프레이리 교육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지리교육에서의 인간화교육

지리교육은 지표공간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리적 소양을 기르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변증법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 날카롭게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그것이 결국 인간을 참된 인간화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이며, 인간이 참된 주체 즉,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20:80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학생들에게 지리교육이 단지 몇 가지 지적 이론만을 암기하여 자신들의 현실적 상황을 벗어던지는것에만 몰두하게 하는 이기적 아이들을 생산하는 교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 시각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을 담보해내고 그것을 통해 참된 인간화를 이루게 하는 교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출현이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어가면서 부의 편중의 문제, 가진 자와 못가진자간의 삶의 공간의 지역적 차이, 기아 및 경제적 억압등의 문제는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질서'가 우리의 공간적 구조를 변형시키고 있는 재앙적 상황을 우리는 학생들에게 알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직접 참여 해결하는 자세를 가르쳐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지리교육이 참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인 것이다.

“시민의 참여를 권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리학적 지식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지리학적 지식은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에 의해 수요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참여적 민주주의의 세계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리학적인 안목, 지리학적 역량을 갖추기를 요청하고 있다.”

지리교육을 통해 지리학적 안목과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공간과 세계속에 참된 인간으로서의 해방적 공간속에 자

리매김 해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며, 인간소외를 극복하여 인간이 공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III.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과 지리교육

1. 비판적 문해력의 교육적 함의

문해는 단순하게 글자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는 문해 개념을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 설명에서 벗어나 문해를 좀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와 세계가 끊임없이 관계맺음으로서의 새로운 문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문해는 이제 개인적인 도구로서의 개념을 넘어 세계를 변혁하고 실천하는 매개로서의 역할 도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기능문해에서 비판적 문해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판적 문해는 문자를 생존하는데 쓰는 도구적 개념을 넘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비판적 문해에서 문자를 읽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이다.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지식을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비판적 문해교육의 태동에 있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는 바로 파울로 프레이리로서 그는 저서를 통해 비판적 문해교육으로 세계를 변혁해야 하며, 나아가 삶의 주체로서의 참된 인간화의 길로 나아가갈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은 참된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은 세계를 올바르게 읽고 나와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점, 나아가 이 세상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인간적인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력의 지리교육적 함의

“파라주의 수도가 벨렘이다”는 사실에서 ‘수도’

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벨렘이 파라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파라는 브라질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공책에 베껴두고 암기하기에 여념이 없다.”

현실 지리수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무비판적 형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윗 글을 통해 우리는 지리 수업에서 비판적 문해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프레이리의 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지역과 전체를 따로 따로 분리하여 단순히 암기의 대상으로 여길 때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부분과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변증법적 사유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의미 없는 사실의 단순한 암기나 반복식 지리수업은 인간의 표현력과 창조력을 마비시키고 길들임의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이다. 따라서 지리수업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인식능력을 키우고 탐구능력, 의사결정능력, 사회참여능력 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프레이리의 문해교육방법을 응용·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리교육의 최종적 목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한다함은 사회공간속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리교육에서의 비판적 문해 기술들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비화되고 왜곡된 세계관으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해방되기 위한 비판적 도구를 제공하는 정도만큼 해방적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해내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논쟁들을 반영하는 수업 “교재”를 생성해내기 위해 배워야만 한다.

지리교육에서의 가장 훌륭한 문해프로그램의 목표는 현재 교과서에서 왜곡되어 보여주는 신화, 현실왜곡등에 맞서 우리 사회의 신화에 도전하고, 현실을 분명하게 지각하고, 대안을 발견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행동지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간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문화적 경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정교화할 수 있는 언어기술의 습득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리교육은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을 통해 단순한 기능적 문해 즉 읽고, 쓰고 암기하는 개념을 넘어서 정치적 문해, 비판적 인식능력과 실천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한 해방의 문해, 부분과 부분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서의 문해의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판적 지리문해교육을 통해 공간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소외의 현상을 고발하고 선언함으로써 유토피아적 공간 즉 인간화의 실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3.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력의 지리교육에의 적용

브라질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성인문해교육방법을 한국에서 그것도 공교육 지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길에 대해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비판적 문해교육은 프레이리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며 그 나라, 그 지역,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고민되어야 할 교육방법이지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프레이리가 적용했던 방법들이 브라질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개된 것 처럼 제도권 지리수업에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은 현실적 상황에 맞게 진행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한다.

1) 프레이리의 교육프로그램

파울로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문화서클이라는 소집단을 통하여 성인문맹퇴치교육을 진행시켰다. 문화서클에서의 문맹퇴치교육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한다는 기능 이외에 침묵의 문화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프레이리의 교육프로그램은 준비단계와 진행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는 다시 더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된다.(표 1)

이 방법의 효과성과 타당성은 학습자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는 데 있다. 처음에는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일상생활인 실존 상황에서 만나는 사물과 사건의 실용적 가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상식을 반영하고 상식에서 출발하되 프레이리는 그것을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프레이리의 방법은 문해자들이 문자코드를 알고,

표 1.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프로그램

순서	프레이리의 문해교육
준비 단계	어휘 조사단계
	생성어 선정단계
	편찬단계
	일정표의 작성
	음소족의 분류카드 작성
진행 단계	편찬물과 생성어 제시단계
	토론 및 해석단계
	생성어 주목단계
	단어제시와 분절단계
	발견카드 제시단계

자신을 정치화하고, 언어와 세계를 총체로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방법론적이고 언어학적 규칙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규칙들을 넘어서기도 한다.

프레이리의 방법은 문구나 단어, 음절을 그대로 재생하는 좁은 안목과 안목을 좁게 하는 방법을 거부한다. 학습자들이 “세계를 읽고” “글을 읽는” 활동은 구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프레이리의 방법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레이리는 읽고 쓰기 “교습본”을 반대한다.

간략히 말해, 프레이리의 연구는 문해교육 방법 그 이상이다. 그는 교육에 대한 넓고 깊은 인식을 토대로 교육의 핵심에 정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민중들의 문해교육은 결국 도달해야 할 필연적 방법 즉 브라질 민중의 정치화를 위해 설계한 교육전략이다.

프레이리가 농민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은 분명히 읽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의 방법은 브라질 농민들이 세계를 읽을 수 있고 글과 세계를 연관지을 수 있는 상태, 달리 말해 브라질 농민들의 정치화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구성된 것이다.

3) 프레이리 교육프로그램의 중3 세계화 단원적용

프레이리 비판적 문해교육의 핵심은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전통적인 교육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보편적 가치체계를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세계가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가르쳐왔다. 하지만 교육은 절대로 중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일 수도 없다. 중립적이지 않은 세계를 중립적이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는 비판적 인식능력을 기르

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마치 중립적인 듯이 말하는 교과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인식능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의 핵심은 교육은 정치적이라는데 있다. 대부분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등이 마치 정치와는 무관한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교육 상황속에는 정치적 요소들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이데올로기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개입의 요소들은 결국 자신들의 계급적 상황을 대변하게 되며 그로인해 더욱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현실은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기술과 자본, 즉 서구(미국)중심 세계체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속에서 20:80이라는 사회시스템이 당연시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낙관적 세계화 담론은 결국 학생들을 실존적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을 통해 비판적 세계읽기 즉 세계에 대한 감성적 이해와 이성적 이해를 역동적으로 포괄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려면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속에 그의 해답으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방법을 통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그 지평을 통한 실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읽고, 글과 세계를 연관지을 수 있는 상태로 이끄는 것, 즉 비판적 인식의 상태로 도달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식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현실 공간속에서 실현하는 실천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으로서의 지리교육에서 학생들이 교과서의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 현실간의 관계를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하며, 지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를 올바르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지평공간속에서의 현실을 실천을 통해 오픈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리적 문해력을 통한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리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을 통해 사고와 실천을 함께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체적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논자는 프레이리가 브라질의 민중 즉 문화서클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프로그램을 나름대로의 실존적 상황을 감안해서 현실 지리교육방법에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공간구조속에서 세계화는 학생들의 실존이며, 실존적 상황속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코드화되어 있는 세계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프레이리의 문해교육방법을 통해 의식화되고 나아가 주체적 인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학습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논자는 프레이리의 교육프로그램을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의 내용인 VII. 세계화 시대에의 대응이라는 단원에 접목시켜보았다. 특히 이 적용은 프레이리가 브라질에서 추구했던 문해교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프레이리가 브라질에서 추구했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문해교육에는 기능적문해를 통해 정치사회적 문해에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면, 논자가 우리나라 공교육속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려는 비판적 문해교육은 기능적 문해가 아닌 정치사회적 문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덧씌워진 이데올로기조작상태를 꿰뚫어보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말해 학생들에게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는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조작되어 우리들의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는지(세계화의 의미),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배경은 무엇인지, 세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세계화를 통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지 등등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인식을 통한 실천의 행보를 잡는 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과 실천이야말로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의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인간적 주체성을 확립할때 인간화의 길은 우리 앞에 성큼 성큼 다가올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기계적 접목을 의미하지 않으며, 논자 나름대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을 적용·제시함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는 많은 지리학도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준비단계

①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 조사단계

함께 학습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어휘속에 세계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단계이다. 학생들과의 공식적·비공식적 접촉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세계화라는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세계화 관련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곧 교사이며, 교사가 곧 학생

임을 인식하여 더불어 함께 학습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학생들 상호간의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존적 의미가 가장 큰(가장 정서적인) 낱말들 뿐만 아니라 그들 특유의 전형적 말들, 그 학생들의 경험과 관계있는 낱말과 표현들도 뽑아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존적 상황-지역, 사회, 나라-속에서 세계화라는 의미가 그들의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것과 관계있는 낱말들과 표현들을 추출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관계가 권위주의적이며 수직적이어서는 안되며 보람찬 관계들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학습주제는 연구자인 교사들이 아무리 능숙하게 작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영감으로부터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어휘조사로부터 나와야 한다.

어휘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언론, 방송매체, 인터넷, 각종 인쇄매체등을 통해 교육자들은 이미 이데올로기에 의한 조작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면서 어휘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② 조사된 어휘들로부터 학습주제들을 추리는 단계

학생들의 실존적 상황속에서 얻어진 학습주제들을 추리는 단계로서 프레이리는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어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중에 음소의 풍부성이나 발음의 곤란성은 포르투갈언어의 독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논자는 구문론적 기준보다는 의미론적 기준 -

표 2. 생성어 선택의 기준

음소의 풍부성(phonemic richness)
발음의 곤란성(phonemic difficulty)
선택된 낱말들은 해당 언어의 음성학적 곤란성에 대응하여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부터 점차 어려운 단어로 배열돼야 한다.
실용성(progmatic tone)
해당 낱말이 주어진 사회, 문화, 정치적 현실과 보다 더 연관돼 있음을 대표한다.

즉 낱말과 그 낱말이 가르키는 사물간의 연관, 그 낱말과 그 낱말이 지시하는 실제적 사물과의 일치도, 그 단어가 잠재적으로 수행하는 의식의 질적인 정도, 또는 그 낱말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룹 내에 생성시키는 사회문화적 반응군을 최대로 결합시킬 가능성이 있는 단어인가-으로 학습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더 맞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으로 파악할 때 실존적 상황속에 있는 학생들이 실생활속에서 밀접하고도 쉽게 세계화의 문제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밀접한 세계화 문제는 무엇일까?

③ 세계화에 대한 교재 편찬 단계

세계화와 관련한 학습주제들은 학습자들이 교사의 협조를 받아 해독해 내야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편찬물은 주로 실제적 현실, 또는 학습자들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 및 그림의 형태를 띤다. 이것이 슬라이드로 비추어지면 학습자들은 인식 행위의 기본적 작업, 즉 인식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보는 객관화 작업을 겪게 된다. 이 같은 '거리' 경험은 교육자 역시 겪어야 하는 바로써 교육자와 학습자들은 함께 그들 사이를 매개하는 인식 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된다.

편찬물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에서부터 국가적 문제들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열림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럴 때 편찬물을 해독함에 있어 해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다.

교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나 그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화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에 의해 교재를 만들어질때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급적

이면 학습자들이 만드는 교재가 시각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슬라이드, 그림 뿐 아니라 직접 영상을 제작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④ 공동 작업자들을 위한 일정표 작성

학생과 교사는 세계화 문제의 교재를 만든 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한다.

(2) 진행단계

① 편찬된 교재 제시단계

학생들에 의해 편찬된 세계화와 관련한 교재를 다른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단계이다. 그 내용은 조력자인 교사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교사는 학생들의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화의 의미와 그것으로 인한 현실적 상황들을 객관적이고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볼 수 있도록 교재순서를 정하는 것이 의미있는 진행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각 학급에서 나누어진 그룹-이후 모둠-발표에 따라 세계화의 의미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 상황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계화의 문제가 자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한다.

② 토론 및 해석단계

편찬된 교재를 발표한 후 학생들은 각각의 모둠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 분석을 한다. 비판적 분석 즉 해석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발표된 지역사회 문제에 담겨있는 표면적인 문제(표층구조)를 인지하는 것은 물론 심층적인 문제(심층구조)를 해석할 수 있도록 비판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때 어떠한 유형의 편찬물이든 학습자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학습자들은 인식행위의 기본적 작업인 '거리경험'을 하게 된다.

'거리 경험'이란 인식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보는 객관화 작업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같은 '거리 경험'은 교육자 역시 겪어야 하는 바로써 교육자와 학습자들은 함께 그들 사이를 매개하는 인식 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해독이라 하며, 해독의 목적은 '실제적 틀' 속의 상황에 대한 학습자들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비판적 수준의 인식까지 이르게 한다.

플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거리 경험’을 통한 해독에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그저 인식 그자체로서 끝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바탕 아래 실천의 씨앗을 싹터오르게 되는 것이기에 ‘거리 경험’을 통한 ‘해독의 과정’을 거쳐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③ 주목 단계

학생들이 토론과 해석이 마무리 된 후에 교사는 각각의 모둠이 발표한 편찬물의 내용과 토론 및 해석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준 후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데 있어서의 방법으로 브레인 라이팅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해결방안에 주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문제점의 제시와 파생적 문제점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결정된 세계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그 문제에서 파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⑤ 종합적 사고 단계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제시된 세계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해결방안을 본인들이 실존속에서 직접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플레이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진보적 프락시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3. 파울로 플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의 예시안

순서	플레이리의 문해교육
준비 단계	세계화 문제 조사단계
	세계화 문제 선정단계
	문제점에 대한 교재 편찬 단계
	공동 작업자들을 위한 일정표 작성
진행 단계	세계화의 문제점과 편찬된 교재 제시단계
	토론 및 해석단계
	문제점에 대한 주목 단계
	문제점의 제시와 파생적 문제점 인식단계
	종합적 사고 단계

지금까지 플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중3 세계화 단원에 접목시켜본 것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수업사례 연구

(1) 연구대상

플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을 현실 공교육 조건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 우선 연구자 본인의 학교 즉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문산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주제인 세계화의 단원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한 단원(VII. 세계화 시대의 대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계화라는 용어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

좀 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싶었지만 본 연구자의 능력 부족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문산여자중학교 3학년 2개반(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문산여자중학교는 1968년 세워진 사립학교로서 파주시 문산읍에서 2km 정도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파주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시에 시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해 본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입시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서 특기적성교육-대부분 교과 보충학습-을 중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 상당수가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관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면담이나 관찰이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2) 자료수집

학생들이 본 연구자의 지리(사회)수업시에 적용하는 플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프로그램 방법을 통해 비판적 의식을 어떻게 함양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3년 3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가능한 사회 시간마다 대상 학급의 수업을 총 4회씩 진행하였다. 2학급(총 81명)에 대해 플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프로그램 방법을 적용시켜봄으로써 플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프로그램 방법을 통해 학습한 학생들의

표 4.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의 적용

순서	프레이리의 문해교육
준비 단계	세계화 문제(학습주제) 조사단계·선정단계(1차시)
	세계화 문제(학습주제)에 대한 교재 편찬 단계 및 각 모듈 발표를 위한 일정표 작성(2차시)
진행 단계	세계화의 문제점과 편찬된 교재 제시단계·토론 및 해석단계(3차시)
	문제점에 대한 주목 단계·문제점의 제시와 파생적 문제점 인식단계·종합적 사고 단계(4차시)

비판적 인식능력의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실천의 단계까지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한 분석은 더욱 깊게 숙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에 이후의 논의로 넘기도록 하겠다.

(3)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는 교실 상황에 맞게 적용시켰으며, 각 반의 특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프로그램방법을 적용한 2개 반의 경우에는 표 4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4) 연구의 진행

① 세계화 문제(학습주제) 조사단계·선정 단계(1차시)

세계화 담론은 우리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는 어디서나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해서 아는데 핵심 단어이다. 세계화라는 단어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담론이 되고 있는 세계화는 누가 강조하는 것일까? 세계화는 우리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인가? 세계화는 우리의 삶을 과거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종국적으로 세계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세계화의 의미를 학습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세계화란 용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체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교사: 여러분들 세계화란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학생 1: 세계가 하나가 되자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살려면 서로 돕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학생 2: 세계에 대한 그림(?)인가요

학생 3: 그게 뭔데요.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학생 1: 조사 학생 중 가장 많은 학생들(42명 - 52%)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세계화는 세계화에 대한 낙관적 반응이다. 세계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리라는 기대와 지구촌이라는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세계화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바로 각종 언론매체 특히 TV의 영향이 가장 컸다. 실제로 학생들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들어본 계기도 TV의 영향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 그럼 언론매체에서 말하는 '세계화'의 의미는 어떤 관점속에서의 '세계화'인가?

학생 2, 3: 세계화라는 용어에 대해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다. 이 부류의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의 삶과 세계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세계화에 대한 의미 분석능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의 삶을 규정할 '세계화'에 대한 이토록 낙관적이고 관심조차 없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태도를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무기력한 실존'으로 존재하게 하는가?

세계화의 의미에 대한 학습을 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대하여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두가지 내용(첫번째 글-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내용, 두 번째 글-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세계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은 모듈별(약 5-6명)로 나눈 후 읽은 글을 토대로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했다. 그리고 글 속에서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세계화 관련 어휘를 찾게 하였다. 물론 그 어휘는 글

속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속에서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세계화의 의미를 분석하게 하는데는 많은 자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자료를 읽게 하지는 못했다.

글을 읽고 난 후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지켜본 바, 대체로 학생들은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삶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구촌으로 바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세계화로 인해 개인과 국가, 그리고 기업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결국 세계화가 마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세계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세계화는 지금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세계가 상호 협조함으로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세계화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된 데에는 교과서의 내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무비판적인 내용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적 조건들이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의미를 몰역사적으로 파악하게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몰역사적인 판단에 빠진 학생들에게 본질에 대한 접근과 사회를 구체적으로 맥락화시킬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세계화에 대한 개념파악이 정확해야 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글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화라는 의미가 무조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의미로서만 파악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된 것 같다.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반응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다.

학생 1: 선생님 세계화가 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지나요?

학생 2: 왜 부자나라는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학생 3: 세계화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네요.

학생들은 글을 통해 세계화가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그러한 규정이 단순히 세계화를 통해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하는 공동체의 지향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통해 빈부의 격차,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경제적 예측 심화 등에

표 5. 학생들이 선정한 학습주제

학습주제	선정 이유
선진국과 후진국	'세계화' 되면 될 수록 더욱 차이가 나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차이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만들어진 세계화 기구에 대한 조사
환경문제	세계화를 통해 더욱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
국제분쟁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싫든 좋든 세계화는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을 학생들을 알게된 것 같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속에서 세계화와 관련한 학습주제를 선정하였다. 물론 학습주제를 학생들이 찾는데 있어 교사의 판단이 학생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의 객체로서의 참가였으며, 학생들도 교사의 판단을 주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학생과 교사가 수직적 관계속에서 자리매김 되어있지 않고 학생이 곧 교사이며, 교사가 곧 학생임을 인식하는 수평적 관계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주제들이 선정되었으며 그중에서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주제들은 표 5와 같다.

학습주제를 선정한 후 차시에 대한 과제로서 모둠별로 선정한 주제를 어떻게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발표할 것인지, 또 그 구체화를 어떤 매체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모둠별로 고민해오라고 하였다.

② 세계화 문제의 인식과 구체화

학생들이 선정한 세계화 관련 학습주제들을 기초로 하여 학생들은 모둠별로 선정된 주제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에 고민을 한 사이 많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학생 1: 선생님, 근데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조사를 인터넷에서 했더니 너무 어려운 말들만 나오는데 어떻게해요.

학생 2: 자료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하죠.

학생 3: 국제분쟁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자료를 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세계화와 관련한 주제들을 해석하고 정보를 찾는데 아직 미숙했으며 그것은 학습자와 교사간의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더욱 요구함을 의미했다. 학생들은 그동안의 수업 방식에 있어 교사는 가르치는 자, 학생 본인은 배우는 자로서의 자리매김을 당연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직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편찬물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을 반영하는 어떠한 형태 즉 사진, 그림, 텍스트, 동영상, 플래시, 슬라이드 등의 모든 자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상 학생들이 인식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객관화 경험을 하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 스스로 학습주제에 맞는 자료를 모으고 재구성하는데 열중하였다. 또한 학습주제 자체가 추상적 주제이기 때문에 편찬물의 내용은 추상적 학습주제를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즉 구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막상 편찬물을 재구성하고 만들기 위한 수업시간에 가져온 자료들은 빈약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학생들이 가져온 대부분의 자료들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자료들이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검색하여 찾아온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실존적 상황속에서 고민을 했다가 보다는 그저 자신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물론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했을 때 전혀 학습주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몇몇 모둠들은 교사와의 끊임없는 고민을 함께해오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정한 학습주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 편찬물을 제작하였다.

교사: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각 모둠별로 정한 세계화와 관련한 학습주제를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기 위해 편찬물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둠별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고, 선생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교사 교실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둠에게 조언을 한다.)

모둠 1: 선생님, 근데요 저희들은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오늘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사: 그럼 오늘 만들 수 있는데까지 만들어보고 다음 시간까지 시간을 조금씩 내서 만들어보도록 하세요.

모둠 1: 고맙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교사: 그래요. 방과후에 선생님에게 오면 얼마든지 도와주지요.

모둠 2: 선생님 저희 모둠은 세계화가 선진국의 부를 더욱 넓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진국의 부의 집중은 결국 후진국이 더욱 못살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요?

교사: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모둠 2: 그래서 저희들은 후진국의 상황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현상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려고 해요.

교사: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어떤 자료를 편찬물로 만들어볼 생각인가요.

모둠 2: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동영상 자료예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http://www.kfhi.or.kr/>)라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점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구요.

교사: 그럼 동영상만 보여주나요.

모둠 2: 아니요. 동영상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한 내용도 만들어볼 생각이예요.

모둠 3: 선생님 저희 모둠은 국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 미군 장갑차에 죽은 호순·미선이 문제도 국제분쟁과 관련이 있지요.

교사: 관련이 있죠.

모둠 3: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학습주제로 잡으려고 해요. 미국은 자신들이 잘못해놓고도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곧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가 아닌가요.

교사: 선생님 생각도 여러분들과 같아요.

각 모둠마다 다양한 질문을 했다. 예상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편찬물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조력자로서의 교사인 논자 자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져온 텍스트와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독하면서 인식 대상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학생들 OHP, 컴퓨터 등을 사용하기 위한 편찬물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전지를 이용하여 편찬물을 만들

〈사례1〉

단 원 명	VII. 세계화 시대에의 대응		
학습주제	세계화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	차 시	3/4
학습목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세계화의 그늘에 대해서 말한다.		
수업단계	수업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입	- 세계화에 의한 장미빛 바램 아래에는 세계화에 의해 고통받고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저희 모둠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발생한 세계화의 그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	- 저희 모둠에서 조사한 내용은「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중 제1장 자유시장 경제의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희 모둠은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보았습니다. - 파워포인트1: 세계화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 우선 저희가 제목을 세계화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로 붙인 이유는 사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무조건 좋은 측면이 있는게 아니라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 파워포인트 2: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 파워포인트 3: 인구폭발과 자원의 낭비 - 파워포인트 4: 군비경쟁의 심화 - 파워포인트 5: 문화의 획일화 (각각의 파워포인트 자료마다 세계화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을 함)		컴퓨터 파워포인트
정 리	- 지금까지 발표한대로 세계화에 의해 세계는 모든 국가가 골고루 발전하기보다는 미국주도의 세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자본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 인류의 생활수준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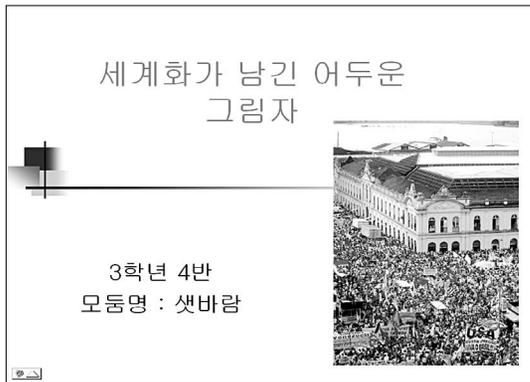


그림 2. 파워포인트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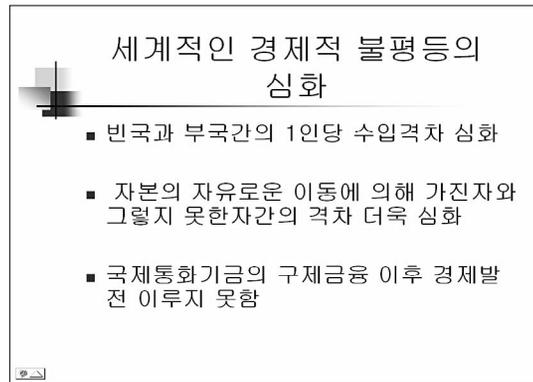


그림 3. 파워포인트 자료 2

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호순·미선이 문제를 국제분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모듬은 그 내용을 연극으로 해보겠다고 했다.

모듬 2 학생들 같은 경우 세계화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더욱 더 차이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로 인해 후진국은 더욱 더 기아와 배고픔의 현실로 빠져버릴 수 밖에 없음을 동영상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려 하고 있으며, 모듬 3 학생들은 SOFA 개정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미간의 문제를 세계화의 흐름속에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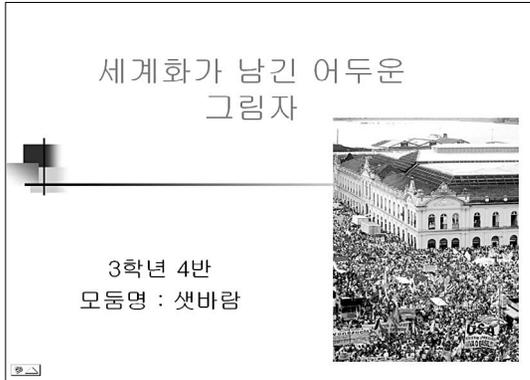


그림 4. 파워포인트 자료 3

라보왔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경험속에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③ 세계화 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다양한 해석

편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 모둠은 다음 기회에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시켜주었다. 실질적으로 발표한 모둠은 2개반 중 6개 모둠이었다. 시간적 제약과 학생들의 준비부족,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자료찾기에 대한 한계 등으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6개 모둠의 내용들은 1차시에 자신들이 직접 선택했던 학습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세계화의 의미와 그것으로 인한 현실적 상황들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편찬물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다음은 학생들의 발표내용을 학습지도안 형식으로 만들어보았다.

학생들의 발표가 있는 후에 많은 학생들은 동감

<사례 2>

단 원 명	VII. 세계화 시대에의 대응		
학습주제	국제분쟁(이라크 전쟁)	차 시	3/4
학습목표	이라크 전쟁의 본질이 미국중심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것을 안다.		
수업단계	수업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입	안녕하십니까? 저희 모듬이름은 전쟁반대입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 이라크 전쟁이 세계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했고,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듬의 발표내용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중심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전 개	-만전뮤직비디오 음악 RATM 의 "Beautiful World"와 강산의 "더 이상 더는" (2000년에 설립된 스튜디오아이스크림에서 2001년에 제작) 보여줌 -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설명(전지로 설명)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전쟁의 본질에 대한 설명 ① 왜 석유 전쟁인지 그것을 알려주마!! ② 중동지역의 패권 장악 ③ 전쟁 이후 복구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이익 ④ 전쟁무기의 실험장 ⑤ 한반도와와의 관계(북핵문제)		약 9분 -단지일보 103호 -한겨레21(2003. 1. 22)
정 리	현재 개전중인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주의에 기반한 것이며 세계화 프로젝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 백만 명의 무고한 이라크 사람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여성등이 죽음, 기아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세계 민주주의와 정의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명분 아래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라크전쟁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 끝으로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만화와 플래시를 보면서 세계화라는 명분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화 2편 플래시1편 (이라크사람들)



그림 5. 수업 자료 1



그림 7. 수업자료 3

하는 표정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자신들의 보고 들었던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표현했다.

〈사례 1〉의 경우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와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학생들을 이해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

학생 1: 근데 신자유주의는 무엇입니까?

발표자: 으음.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학생 2: 선진국 중에선 가난한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나라도 많지 않나요.

이런 반응들은 발표를 하는 학생들조차 아직 용어의 생소함, 내용의 완전이해부족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속에 아직도 표면적인 문제(표층구조)는 인지하지만 심층적인 문제(심층구조)를 해석하지는 못했다.



그림 6. 수업자료 2

〈사례 1〉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화가 낙관적인 희망을 주는 것인양 생각했던 자신들의 생각을 '거리경험'을 통해 인식대상(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사례 2〉의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이라크전쟁-를 다룬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무척 높았다. 특히 학생들에게 세계화와 전쟁간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참혹함, 이라크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그러한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속에 강대국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주의가 숨겨져있음을 파악할 줄 있었으며, 심층구조에 대한 분석능력도 뛰었다. 학생들의 '거리경험'을 통한 해독능력은 '너희들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라는 비야냥과는 달리 상당한 능력을 가졌으며, 그런 해독능력은 현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특히 인터넷-를 통해 습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학생들의 해독과정에는 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현실에 대한 앞의 과정속에서 학생들의 인식능력은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학생 1: 선생님! 수업 준비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학생 2: 전쟁반대 모둠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 미국이 문제가 있네요.

학생 3: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맞는 건 아니네요.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동안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길들여진 문화’에 대한 도전이며, 앞의 과정으로 여겨진다. 지식은 마치 과거로부터 전수되어진 내용을 교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인식했던 학생들이 스스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함양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학습이며, 그러한 학습일때만이 참된 주체적 인간을 만들 수 있다.

④ 새로운 인식과 변증법적 사고의 또 다른 출발

학생들이 학습주제-세계화-관련하여 많은 준비, 학습, 발표를 한 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의 변화는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지식이 저절로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중략)

억압적인 상황을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피억압자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폭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이다.(중략)

노동자가 생산해야 할 물건의 개념을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건은 만들어져야 한다.(중략)

해방을 위해서는 사색과 실천의 변증법적 관계 즉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실천으로 연결될 때 진정 깊어치가 있으며 아울러 깨달음이 선행되지 않은 실천은 맹목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이상의 프레이리의 글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변증법적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까지 발표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난 후 마지막으로 세계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하였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발표하게 한 후 그 중 가장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게하였다. 학생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학생 1: 무엇보다도 교과서에 잘못 소개된 세계화의 내용

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다른 관점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실던가요.

학생 2: 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학생 3: 이제 조금은 세계화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학생 4: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세계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학습을 통해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학생들이 인식한 것을 인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식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과 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프레이리가 말한 프락시스가 성취되는 것이며 진정한 프락시스를 통해 참된 인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IV. 결 론

지리교육은 이제 사실의 나열과 지식의 암기과목이 아님을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지리교육의 대한 이홍우의 비판은 지리교육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리교육의 현재는 어떤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적 능력의 향상으로서의, 다양한 측면의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 지리교육은 방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프레이리의 사상과 교육이론을 지리교육에 접목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리교육이 공간에 대한 학문으로서 공간의 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더 그렇다. 지리교육이 공간의 현실을 명확히 밝히고 그 안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할 때 교육의 주된 목적인 참된 인간화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있어 이제 문해는 단순한 문자의 해독이 아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왜곡에 대한 해독이요, 이데올로기 조작으로 인해 왜곡된 것을 해석하는 해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더욱 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 비판적 문해교육을 통해 현실에 대한 참된 의식을 쌓아나감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레이리의 교육이론은 지리적 문해력을 갖춘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현 지리교육 목표와 일치한다.

“사회과 교육으로서의 지리교육은 민주 시민성 함양 교육을 목표로 하는 본질 교과이다. 시민성의 의미나 속성 및 구현 방향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서, 보편적인 이념형을 찾기가 어렵지만, 지리교육의 목표를 시민성 함양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 없다.”

지리교육에서 요구하는 지리적 문해력을 갖춘 민주시민성을 좀 더 구체화하면 앞으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대안적 관점과 상호 의존성이 요청되는 현실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리교육의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목표에 비추어볼 때 프레이리의 교육론은 지리교육의 목표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문해교육 방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지리교육의 주제들은 인간 삶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의 참여를 권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리교육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지식은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에 의해 수요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계에서 지리교육을 원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삶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적 민주주의의 세계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추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지리교육은 지식의 함양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통해 현실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지리적 문해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 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오히려 지리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현실 사회에서는 반민주적인 행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학생들에게 지리교육은 사고와 실천이라는 유기적 관계의 틀이 깨어지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무감각만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의 비판적 인식능력과 사회참여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현실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인 비판적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실제 수업에서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방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세계화’에 대한 주제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인식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침묵의 문화에 길들여지게 하는 현실 지리교육에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방법을 통해 비판적 인식능력을 키울 수 있었음을 수업을 통해 확인했다.

현실 사회 공간을 가장 빠르게 변화 시키는 핵심은 바로 세계화 담론이다. 현재 세계화의 의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감추어지고 있고, 왜곡되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중등 지리교육 내용에도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 등은 나와있지만 이 내용들을 결국 침묵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침묵의 문화가 아닌 코드화된 세계를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는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 방법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세계화를 주제로 담고 있는 지리교과 내용을 가르치는데 있어 프레이리의 방법론은 의미가 있었다.

끝으로 위에서 제기했던 비판적 문해교육 방법을 직접 현장에서 더욱 구체화시켜 현장에서 적용해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다 많은 방법들이 구체화되어 학생들의 비판적 의식을 함양하고 지리적 문해력을 갖춘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출발이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들로 채워져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한다.

註

- 1) 프레이리가 말하는 문해는 문자해독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의 의식적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누군가가 말해준 세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수동성을 넘어서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2)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이란 검증되지 않은 것, 일찍이 없었던 것, 아직 분명히 알거나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그러나 꿈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유토피아적인 꿈을 꾸는 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자유의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프레이리의 개념 범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프레이리의 저작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

- 거지는 개념 중 하나이다.
- 3) 현실 공간에서 맞서야만 하는 하나의 문제 주제, 장애물을 의미함
 - 4) 한계상황을 뚫고 나가는데 필요한 행위
 - 5) 중3 사회 세계화 단원과 관련한 수업에서는 플레이리가 적용했던 문해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현실적 과정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였다. 특히 플레이리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 적용단계인 단어 분절단계와 발견카드 제시단계는 우리와는 다른 언어체계의 문제이므로 제외했다.
 - 6) 여기서의 교재는 플레이리가 말한 교재와는 다르다. 학생들에 의해서 만든 교재는 발표를 위한 발표자료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옥한석, 1999,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한울.
- 정정호, 2001, 세계화시대의 비판적 페다고지, 생각의 나무.
- 성찬성 역, 1970, 페다고지, 광주출판사.
- 채광석 역, 1973, 교육과의식화, 새발출판사.
- 한준상 역, 1985, 교육과 정치의식, 학민사.
- 교육문화연구회 역, 1998, 플레이리의 교사론, 아침이슬.
- _____, 2002, 희망의 교육학, 아침이슬.
- 채광석 외 역, 1979, 민중교육론, 한길사.
- 김시원 역, 1987, 해방을 꿈꾸는 교육, 이웃.
- 이경숙 역, 1988, 교사는 지성인이다, 아침이슬.
- 최명선 역, 1990, 교육이론과 저항, 성원사.
- 최병두 역, 1982, 희망의 공간, 한울.
- 이강국 역, 2001, 반세계화의 논리, 월간 말.
- 이병곤 외 역, 1998,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예정된 실패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내일을 여는책.
- 신호승, 2002, 다시 플레이리를 생각한다, 진보교육, 11, 진보교육연구소.
- 심성보, 2001, 왜 지금 다시 <페다고지>를 읽어야 하는가?, 진보평론, 7.